



기억과전망

Memory & Vision

2016년 겨울호 (통권 35호)

책 머리에

11월 12일 100만 명에 이어 26일에는 150만 명이 넘는 사상 최대의 인파가 광화문광장에 모여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였다. 이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적인 말로 자신들의 울분을 토해냈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국정을 농단한 세력을 처단할 것을 주장했다. 대통령이 시민들의 요구에 아랑곳 않는 내용의 3차 담화를 발표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12월 3일 서울에서 170만 명, 전국에서 232만 명이 모여들어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다. 시민들은 무엇이 옳고 잘못되었는지 사리를 살피지 않고 당리당략만을 따지는 정치인들에게도 분노의 화살을 겨냥하였다.

민주주의가 점차 생활화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불통에 있다고 본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고집하다 보니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 없이 명령과 지시만 난무하게 되면서, 일부 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이 쉽

게 벌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염치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국민의 4%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왜 그런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을 농단한 자들이나 그에 동조한 세력들은 지숙은커녕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들의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상식과 최소한의 염치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고, 최소한 염치를 갖추어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그래야 상식이 통용이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는 특집 2편, 기획논문 2편, 일반논문 4편 총 8편의 논문과, 한 편의 회고록으로 구성하였다. 특집과 기획논문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의 글로 구성하였다. 특집은 “해외의 민주주의”라는 대주제하에 세계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내용의 논문 2편(강수철의 「독일의 산업 민주주의: 그 양면성의 비판적 고찰」과 유진숙의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패: 구조, 제도, 행위자」)으로 꾸몄고, 기획논문으로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라는 대주제하에 한국자본주의체제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논문 2편(김주환의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서 연대와 민주주의 이념의 기능 맥락과 규범 맥락의 동학: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와 오미일의 「상호부조 협동금융의 전개와 마이크로크레

닷: 지역 자활공제협동조합과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중심으로)을 실었다.

강수들은 「독일의 산업 민주주의: 그 양면성의 비판적 고찰」에서 독일의 산업 민주주의의 구현 사례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가로 상징되는 산업 민주주의의 모순적 양면성을 심층 고찰한 뒤, 한국에 산업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경제적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성찰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해 실질적인 산업 민주주의 내지 경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세력 관계의 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유진숙은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패: 구조, 제도, 행위자」에서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패는 소비에트 시기부터 고착되어온 취약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적 견제 및 감시제도의 부재, 후견주의적 정치문화와 제도적 관행 등과 같은 구조적 요소들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주환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과 조직들은 자신들의 실천을 사회적 경제라는 협소한 영역 안에 가둘 것이 아니라 정치운동과 결합시켜야 하고, 힘들 사이의 헤게모니 투쟁이라는 정치적인 것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기초 위에서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오미일은 「상호부조 협동금융의 전개와 마이크로크레딧: 지역 자활공제협동조합과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중심으로」에서 ‘늘봄’, ‘우리가남이’ 공제(협동)조합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풀뿌리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해 고찰하고, 사회적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

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화에서 나아가 사회적 금융의 공급 주체를 정부, 공익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투자자, 상업은행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상호부조와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협동금융을 안착시키고 제도화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일반논문으로는 이해선과 양아람의 공동연구 「1950년대 초중반 정치적 재난, 헌법정치, 유토피아, 국가: 이관(이종극), 『무한풍차』, 전재호의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 1980~1987년」, 김재민의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투영된 인권의 공백」, 신상숙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의례의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진보적 여성연대: 1985~2016년」을 수록하였다. 이해선과 양아람은 1950년대 한 공법학자가 구상한 국가와 정치, 사회를 고찰하였고, 전재호는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정치사회가 한 역할이 과소평가되었다고 하면서, 김대중의 역할에 주목한다. 김재민은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해외입양정책은 사회문화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친부모와 요보호아동의 복리를 위한 해결책이 결코 아님을 밝히면서, 국가의 통치원리를 인권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상숙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성운동의 집합적 실천의 역사를 조명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는 진보적 여성연대의 확장파 분화 과정을 분석하고, 3·8 여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들을 짚었다.

이외 '87노동자대투쟁'을 전후한 시기의 노동운동을 정리한 장명국의 회고록을 수록하였다. 장명국은 이 글에서 현대엔진 노동자들의 소모임

활동 소개를 통해 87노동자대투쟁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설파하고, 『노동법 해설』(장명국 1982, 석탑)이 한국노동운동에 끼친 영향과 석탑노동연구원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우리 노동운동에 적지 않은 시사점들을 던져주고 있다.

점차 악화되어가는 내외 조건에도 잡지를 성공적으로 발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번 호를 발간하는 데에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 우선 좋은 내용의 글을 내어주신 모든 투고자분들과, 보다 좋은 내용의 글이 실릴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심사를 해주신 심사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억과 전망』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기억과 전망』의 질을 담보해주는 것이라 본다. 『기억과 전망』을 예쁘게 꾸미느라 항상 수고하는 최종숙 박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기억과 전망』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XXXX~~

2016년 12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호룡 씀